

시대 반영물로서의 문화영화

영화는 19세기 말에 등장하여 20세기를 풍미한 뒤 현재까지도 그 매체적·예술적·상업적 지위를 이어 가는 중이다. 수많은 역사적 굴곡을 겪으면서도 영화가 이렇게 자신의 존재감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영화(映畫)’라는 용어 속 ‘영(映·비추다)’자에 나타나 있듯 그것이 자신을 둘러싼 시대상을 비교적 생동감 있게 보존시켜 왔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영화 속 현실이 일률적이거나 단순하게 표현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영화의 제작 주체나 목적, 배경과 환경 등에 따라 그 양상을 달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영화라는 용어 속 ‘화(畫·그리다)’자는 이러한 속성을 드러낸다고 하겠다. 때문에, 시대 반영물로서의 성격을 지닌 영화를 통해 지나간 과거를 들여다보는 행위는 유용하면서도 흥미로운 작업이 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특히 문화영화가 주목된다. 문화영화의 수용과 정착, 활기와 변화, 쇠퇴와 소멸의 단계적 과정이 거대한 역사적 흐름과 결부되어 있는 데다가, 그 내용적·형식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개별 작품 속에 시대적 양상이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기에 그러하다. 여기에는 비교적 적은 비용이 투입되고 짧은 길이로 이루어진 다수의 문화영화가 국가의 주도로 기획·제작·배급·상영되었다는 점이 커다란 요인으로 자리한다. 그렇다 보니 교육적·계몽적·시사적, 때로는 예술적·상업적 차원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방면의 다양한 제재가 촬영의 대상으로 채택되어 다채로운 작품 경향을 선보이게 된 것이다.

이에, 국가기록원에 소장되어 있는 수백 편의 국립영화제작소 제작 문화영화를 통해서도 과거로의 ‘시간 여행’을 떠나는 일이 가능하다. 현재 온라인으로 국가기록원에서 영상을 제공 중인 문화영화는 1950년대 66편, 1960년대 200편, 1970년대 114편, 1980년대 146편, 1990년대 81편 등 총 607편에 이른다.

온라인으로 국가기록원에서
영상을 제공 중인 문화영화

1950 66^편

1960 200^편

1970 114^편

1980 146^편

1990 81^편

이를 다시 분야별로 구분해 보자. 정치 분야에서는 정권 유지·국방 및 안보 강화·국제 친선과 외교 협력 등이, 경제 분야에서는 산업 발전·국토 개발·소득 향상 등이, 사회 분야에서는 공익 실현과 질서의 준수·생활 개선 및 의식 제고·지혜의 습득 및 지식의 확장 등이, 문화 분야에서는 순수·대중·민족·인류 문화의 창달 등이 핵심 주제로 설정되어 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영화 속 내용이 시대별로 조금씩 상이한 분포를 나타내었다는 사실이다.

형식에 있어서도 대동소이하다.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문화영화는, 먼저 양식적 측면에서는 시기에 따라 러닝 타임이 긴 것과 짧은 것, 단편과 시리즈, 다큐멘터리와 내러티브 영화의 비중이 다르게 형성되었다. 다음으로, 기술적 측면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화면 색깔을 기준으로 흑백에서 컬러로, 기록 매체를 기준으로 필름에서 비디오로, 영상 화면을 기준으로 실사 일변도에서 애니메이션 등 여타 이미지로 이동 또는 확장되는 경향을 보였다.

본고의 3장에는 이와 같은 한국 문화영화의 시대별 특수성과 변화상이 개괄적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4장의 경우 대표적인 작품들을 대상으로 그 특징적 양상에 관한 분석적 설명이 이루어져 있다. 이를 통해, 2장에 서술되어 있는 바대로 그 개념과 범주의 모호성을 동반하고는 있으나, 한국영화사에서 결코 간과될 수 없을 뿐더러 무엇보다 시대 반영물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문화영화에 대한 관심의 저변과 사유의 지평이 더욱 확장되기를 기대한다.